

소비세 인상·환경규제 겹쳐...가스값 6불 전망

갤런당 최대 65센트 추가...연간 600~1,000달러 더 내야

캘리포니아 가스값이 7월 1일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과 환경 규제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6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주정부의 소비세 인상이다. 7월부터 소비세가 갤런당 1.6센트 추가되면서 가스값이 오르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승인한 '저탄소 연료 표준(LCFS)' 프로그램도 가스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 브라이언 존스 주상원 소수당 대표는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현재 추산으로는 갤런당 최대 65센트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남가주자동차협회(AAA) 역시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AAA 대변인 지아벨라 기글리노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휘발유세와 저탄소 연료 표준 강화로 연간 약 600~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칠 경우,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캘리포니아 내 두 개 정유소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공급 차질이 더해지면 가격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 존스 의원은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면 2026년 말까지 갤런당 8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스 의원은 저탄소 연료 표준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게시했으며, 현재까지 2만 5,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는 환경을 보호한 만큼 캘리포니아의 경제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존스 의원은 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지역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가스값 인상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가격 인하 조치를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sutterstock

7월 1일부터 LA 최저임금 17.87불

가주 도시별 인상...웨스트할리우드 19.65불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도시별로 인상 폭에 차이가 있다.

전국법률리뷰(National Law Review)에 따르면, 샌타모니카, 에머리빌, 버클리 등 일부 도시는 특히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인상됐으며, 1월 기준 약 25개 도시가 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7월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여러 도시가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패스트푸드·의료업계·관광업계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는 별도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LA에서는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상 법안도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같은 날 발효되는 기타 주요 법률들과 함께 시행된다. 여기에는 도난 물품 판매 단속, 단기 임대 청소비용 투명화, 기사노동자 보호 강화 등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사진=sutterstock

특정 산업군은 더 큰 인상 폭을 보인다. 예를 들어, 웨스트할리우드의 호텔 종사자는 \$19.61에서 \$20.22로 인상된다. LA의 호텔 및 공항 근로자들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20로 책정되어 있으며, 타 산업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이오아나 마린레스쿠 교수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인상은 임금 상승을 가져오겠지만 고용에는 제한적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고용이 약간 줄 수 있으나, 경쟁이 덜한 지역이나 인상폭이 완만한 곳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도시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 로스앤젤레스: \$17.20 → \$17.87
- 샌타모니카: \$17.21 → \$17.81
- 웨스트할리우드: \$19.61 → \$19.65
- 알라미다: \$17.00 → \$17.46
- 버클리: \$18.67 → \$19.18
- 에머리빌: \$19.36 → \$19.90
- 프리몬트: \$17.30 → \$17.75
- 밀피타스: \$18.20 → \$17.81 (예외적 하락)
- 샌프란시스코: \$18.67 → \$19.18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이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채용자 준비하세요.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Reverse Mortgage • Line of Credit - Low Cost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채용자
-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Sean Kim
Senior Loan Agen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